

“나주에서 옛 선비들의 문화, 오감으로 느껴보세요”



新금성별곡… 나주향교 스테이

28일부터 1박2일간 개최
‘금성별곡’ 현대적 재해석
유생복 입고 상읍례 체험
“천년 고도 나주 체험 기회”

나주시가 오는 28~29일 1박 2일간 나주향교에서 ‘新금성별곡…나주향교 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나주향교 스테이는 국가유산청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조선 성종 11년(1480), 나주향교 박성건 교

수가 가르쳤던 제자 10인이 소과에 급제하자 그 감격을 자랑한 금성별곡을 토대로 기획됐다.

금성별곡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의미를 되새겨 보고 나주읍성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둘러 보며 선비문화와 나주향교의 우수성을 공감해 보자는 취지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생복 입고 상읍례 체험해 보기’, ‘해설이 있는 나주향교 둘러보기’, ‘논어 시패놀이’ 등으로 구성됐다.

또 지역주민단체와 연계한 ‘전통 인력거로 4대 성문 투어’, ‘3917 마중에서 나

주배 양갱 만들기’, ‘가족 차담’, ‘국악공연’, ‘자연유산을 활용한 금성산 물레길 산책 및 플로깅’도 곁들였다.

행사 기간 나주읍성에서는 ‘2024 나주 문화유산 야행’이 함께 열려 나주향교 스테이 참여자들은 천 년 나주의 밤거리 축제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옥 나주향교콘텐츠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나주향교 스테이를 1회 진행했는데,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많았다”며 “행사 참여자들이 옛 정취 품은 향교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유생들의 예를 배우고, 천년 고도 나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좋은 기회라고 평가해 주었다”고 말했다.

‘新금성별곡 1박 2일 향교 스테이’는 유료로 운영되며, 참여 희망자(1인당 3만원)는 ‘나주향교 굿은 소나무학교’ 블로그나 (061)334-2338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향교 굿은 소나무학교’는 국가유산청·전라도·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향교콘텐츠회단이 위탁·운영하는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동강면, 한반도지형 전망대 환경정비 활동

나주시동강면(면장 나선희)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각계 사회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한반도지형전망대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한반도지형 전망대는 영산강 자전거길과 수국 명소로 자리 잡은 나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에서 주민들은 앞장서서 잡초와 잔가지를 제거하고 쓰레기수거와 수국 정성 작업을 통해 전망대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나주=조대봉 기자

서연화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5월 수국 850주 식재한 데 이어 이번 환경정비 활동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전망대와 수국 길의 매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선희 동강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동강면을 더욱 깨끗하고 활기찬 곳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치료·약제비 지원 확대… 연 최대 36만원 지급

나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선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에서 치매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

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2433건, 1억9000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후 소득 기준을 없앤 출산 지원 정책에 이어 치매 또한 더 많은 환자, 가족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단계별로 낮출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추석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시 10% 환급”

11~15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나주시가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Payback·보상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나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4일 밝혔다.

환급 이벤트는 6개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진행된다.

11일 남평·공산 오일장을 시작으로 12일 세지 오일장, 13일 다시 오일장, 14일 목사고을시장, 15일 영산포풍물시장 순이다.

상품권 환급은 구매 후 반드시 ‘2시간

이내’ 전통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과 구매 당일 발급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5만원(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이다.

재발행하거나 간이로 작성한 영수증은 환급 불가하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나주사랑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배가 된다.

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 할인 혜택과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5%캐시백 이벤트에 이번 전통시장 10%페이백 혜택을 더하면 총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신품종 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19~26일 신화, 창조 품종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 맞춤 컨설팅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명품 나주배’ 만들기 총력

재배-생산-출하 단계별 컨설팅

나주시가 국내육성 신품종 배의 고품질화 및 생산량 확대를 목표로 묘목 지원, 덕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사업 지원에 이어 재배-수확-출하까지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나주APC)에서 국내육성 품종 배인 신화·창조 생산 농가(21농가)를 대상으로 총 3회, 수확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숙기판정단은 1차(8월19일), 2차(8월23일·26일)로 나눠 각 농가가 수확한 배의 당도와 경도 측

정 및 현장 시식을 하고 농가와 협의해 8월 말까지 모두 수확 및 계통출하하기로 결정했다.

숙기에 맞춰 수확한 시장인증 품질보증 배는 자체 브랜드인 ‘천년이음 나주배’로 출하된다.

‘우리품종 명품 나주배 종합 컨설팅’은 시장인증 품질보증제에 참여하는 국내육성 신품종 ‘신화’와 ‘창조’ 농가 21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신품종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교육 3회, 농가 현장 컨설팅 21회, 이번 맞춤형 수확기 컨설팅 3회까지 총 27회 실시됐다.

나주시는 ‘우리품종 배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올해 5억원을 들여 ‘신화, 창조, 슈퍼골드’ 등 국내 육성 신품종 묘목

8000주, 신품종 식재한 과원을 대상으로 10ha 규모의 덕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 국내육성 신품종 배 재배면적은 2018년 320ha로 전체 면적 대비 16%에 불과했다.

올해는 국내육성 신품종 묘목 지원, 덕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전체 면적 대비 23%(예산면적 410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컨설팅에 참석한 농업인 A씨는 “새로운 국내 육성 품종 배를 도입하며 재배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생산 기반 지원과 함께 신품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이제는 맛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 변경… 오전 7시부터

청소 작업자 안전 확보 기대

나주시는 청소작업자의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새벽 시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근무 시간 변경으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청소작업자의 오전 4시

부터 근무로 인한 피로도와 안전사고 위험도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거작업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시민들에게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전 12시로 정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 일몰 후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오후 1시까지 수거해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청소작업자 근무시간 변경으로 청소작업자와 시민 모두 만족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들께서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일몰 후 배출 기준을 잘 지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